

40-12 창세2:4-3:24, 우리말 성경 초역, 이 대선 목사 사역(41요)

에덴 동산 농업학교 서론

- 2:4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날, 그들이 만들어졌을 때, 땅과 하늘들의 발생록들이니라.”
- 2:5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위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는 「들판의 어느 수풀이라도 아직까지」 없었으며, 「들판의 아무 풀이라도 아직까지」 싹이 트지 않았다."
> 3:23
- 2:6 “그러나 「안개가」 땅으로부터 늘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땅의 모든 지면을 물로 적셨다.”

A. 땅을 경작하도록 아담을 지으시는 하나님

1. 아담을 지으심

- 2:7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먼지로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2. 에덴에 동산, 농업학교를 세우심

- 2:8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에덴에 한 동산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가 지은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 2:9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보기에 탐이 나고,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자라나도록 하셨다: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이렇게 보아서 탐이 나고, 먹기에 좋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앞에서 물 없이, 강이 없었을 때에, 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신의 능력으로 만들어 보여 준 것들이다.

3. 4개의 강들을 지으심

- 2:10 “동산에 물이 들어 가도록하기 위해서 에덴으로부터 한 강이 흘러 나왔고, 그것은 「거기로부터」 갈라졌고 그것은 머리들 네 개가 되었다.”

2:11 “첫째 이름은 피손이다, {바로 그것은} 거기에 금이 있는 모든 하빌라 땅을 돈다.”

2:12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좋고, 칠혹같은 보석과 베히라흐가 거기에”

2:13 “그리고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이다. {바로 그것은} 쿠씨의 땅 모두를 돈다”.

2:14 “세 번째 강 이름은 티그리쓰다. {바로 그것은} 아쉴르의 동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네 번째 강 {그것은} 유프라테쓰 (이다).“

배후3:6에 보면,

δι’ ὧν ὁ τότε κόσμος ὕδατι κατακλυσθεὶς ἀπώλετο· (2Pe 3:6 BGT)

‘그것(물)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은, 물로서 범람하게 되었을 때에,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에덴은 실낙원이 된 것이다. 유프라테쓰 강과 티그리쓰 강은 이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손 강과 기혼 강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유는 살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배후3:6의 기록대로 그 당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피손 강과 쿠씨의 땅의 기혼 강을 찾아냈다.

피손 강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독립국가인 Qatar 나라 반도가 시작되는 오른쪽 페르시아 만 Persian Gulf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기혼 강은 역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피손 강 아래 쪽의 넓은 지역을 흐르다가 피손 강이 페르시아 만 Persian Gulf로 흘러 들어가는 아래쪽에서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탐구를 근거로 하면, 에덴 동산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락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프라테스와 타이그리쓰 강이 페르시아 만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피손 강과 기혼 강 역시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가면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흘러가면, 4개의 강들이 페르시아 만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에덴동산이 위치했던 곳이다.

단지, 배후3:6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물)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은, 물로서 범람하게 되었을 때에, 에덴도 멸망해서 지금의 페르시아 만 아래로 가라 앉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반만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4개의 강들에서 흘

러 내려 온 퇴적물들이 에덴동산을 덮고덮어서, 적어도 2 마일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퇴적물들이 에덴동산 지역을 덮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에덴동산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해서 밝힌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의 기록을 설화나, 우화, 가상적인 연애 소설처럼 가볍게 취급해 온 세속적인 해석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중지부를 찍었다. 에덴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 중간 즈음에 있었다는 위치를 밝힌 이러한 연구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지으시고, 첫 가정을 만들어 아담 가정을 경작인으로 훈련시켜서 지구를 경작하도록 내 보내셨다는 기록, 즉 인류가 어떻게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창세기 2-3장의 기록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발자취였음을 사실로 입증하는 통쾌한 고고학적 업적이다.

YouTube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keNZgi4IDmQ>을 치고 들어가서 관람해 보기 바란다.

4. 경작하도록 아담을 배치하심과 지시문

- 2:15 “그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에덴동산에 배치하셨다.”
- 2:16 “하나님 여호와님께서는 {동산의 어느 나무에서} 너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라고 그 사람에게 명령했다.”
- 2:17 “그러나,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는 [확실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בְּיוֹם אֲכָלָהּ מִמֶּנּוּ מוֹת תָּמוּת:

2. die as a penalty = be put to death:

2.b. inflicted by God, מוֹת תָּמוּת: Gn 2:17 (BDB559, 2)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BDB는 아담이 신이 주는 형벌로 죽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것이 정확하다. 영적인 죽음이 아니다. 숨쉬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B. 가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2:18 “그리고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1} 그를 위해서 그와 조화를 이루는 도우미를 {만들겠노라2},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 아담의 도우미 후보생으로 동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동물들을 만들었고 그들 중에서 아담의 도우미를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셨다.

2:19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를 보시려고 그 사람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이름 지은 모든 것들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2:20 “그 사람은 모든 짐승들에게 그리고 하늘의 새들에게 그리고 들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에게 이름들을 지어 불렀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 분께서는 그에게 적합한 도우미를 찾지 못하셨다.”

2. 아담의 도우미로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2:21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위에 깊은 수면을 떨어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는 잠을 잤고, 그 분께서는 그의 갈비뼈들로부터 하나를 취하셨으며,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 아래를 살로써 메우셨다.”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자로부터 취한 갈비뼈를 여자로 형체-지으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 그녀를 그 사람에게 데리고 왔다.”

여자를 만든 때는 너남이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남은 [확실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지시가 내려진 한 참 후에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3. 가정의 시작

가정은 사랑한다는 남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2:23 “그 사람이 말했다, 이 (여인은)는 이제 내 뼈 중의 뼈다, 그리고 내 살 중의 살이다. 이 (여인은)는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는 여자라 불리울 것이다.”

남자는 אָדָם 이씩, 여자는 אִשָּׁה 이씩이라 부르는데, 남성 אָדָם 이씩에다 여성형을 표기하는 אִ , 만 붙였다.

2:24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부인에게 **달라붙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은 글을 쓰던 저자의 간평문이라고 본다.
남자가 그의 부인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달라붙어야 산다.
신명4:4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라붙으면 산다.

2:25 “그리고 {그들 둘이}, 그 사람은 그리고 그의 부인은 벌거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피차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직은 옷이 없었을 때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를 경작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혼자서는 경작하고 생육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꾸미고 나서, 지구를 경작하도록 내보내려고 준비하시고 계셨다.

C. 에덴 동산에서 치루는 시험

욥기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서도 뱀이 사탄처럼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이 시작 부분에 들어 있다. 4가지가 등장한다:

- 1). 시험하는 뱀,
- 2). 시험을 당하는 하와,
- 3). 하와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아담,
- 4). 과일들이 심겨져서 저주를 받게 되는 땅이 시험에 등장하는 대상들이다.

1. 뱀이 제출한 교활한 문제

3:1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뱀이」⁰³, 들판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 보다 더 <2:25교활>[했다]. 이제 그것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원의 모든 나무들로부터 너남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가?}”

עָרוֹם "교활한"과 עָרוֹם "벌거숭이"의 단어놀이

עָרוֹם 아담(3:1) "교활한"과 עָרוֹמִים 아루땀(2:25) "벌거숭이"의 단어 놀이를 볼 수 있는가? "벌거숭이"의 형용사는 עָרוֹם, עָרָא 아담이다. "벌거숭이" עָרוֹם, עָרוֹם "교활한"을 자음으로 바꾸면 두 개의 글자들이 완전히 같은 자음들이다: עָרוֹם = עָרוֹם

만일 크리스찬이 거울 앞에 서서 뱀은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곧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뱀을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것 보다 내가 사탄이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과 뱀이 제출한 시험 문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וּמֵעַץ הַדָּעַת טוֹב וְרָע, לֹא תֹאכַל מִמֶּנּוּ

“그러나,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남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2:17)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동산의 어느 나무에서나」⁰³ 너는 ²²¹[자유롭게 먹어도 좋다]’(2:16)

מִכָּל עֵץ-הַגֵּן אָכַל תֹּאכַל:

לֹא תֹאכַל מִכָּל עֵץ הַגֵּן:

뱀이 제출한 시험 문제
정원의 모든 나무들로부터 너남(회)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3:1)

2. 하와와 뱀의 대화

3:2 “「동산 나무들의 열매로부터」⁰³ 우리는 먹어도 된다”(라고),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

뱀이 제출한 문제는 이미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된 내용을, 부정문으로 바꾸어서 물어 보았다. 그리고 동사를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바꾸었다.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한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부정문을 다시

긍정문으로 바꾸어 말하면서, 말려들기 시작했다.

3:3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들로부터」⁰³, 그것으로부터 {너/희/남\들은 174[결단코] 먹어선 안 된다}, 그리고, ²³{너/희/남\들이 죽지 | 않으려면!} 그것을 {너/희/남\들은 174[결단코] 만져서도 안 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와가 직접 하느님께로부터 들었는가?

이때에 하와는 세상에 없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대답을 했다. 하와는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이라고 정확하게 나무 이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들로부터’라 애매하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지시문에는 들어 있지도 않는

{너/희/남\들은 174[결단코] 만져서도 안 된다},는 어휘를 지어서 보냈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나,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남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고 지시했을 때에 하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부분은 하와가 유죄나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디모데전서2:14-15에 보면, 여자가 꾀임을 받았고 죄를 범했다. 그러나 자기를 통솔하고, 기록하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면, 그 여자도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들 가지고 말씀안에서 토론하면 신앙하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3:4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남\들은 ³⁹[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직접 듣지 않았고, 사탄의 말은 직접 들은 후에 곧 시험에 빠진다.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다.

3:5 “「너/희/남\들이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⁰³ 그리고 나면, 너/희/남\들의 눈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남\들은 선과 악을 아시는 (자)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아시기 때문에.”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의 눈들이 열려서 벨거승이의 모습을 보게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3. 뱀을 만난 결과

1) 선악과를 따서 먹음

3:6 “그 나무는 쳐다보도록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눈들에는 탐이난다는 것과, 그 나무가 먹기에 좋다는 것을, 그 여자가 보았을 때에, 그녀는 그것의

열매로부터 **떴다**. 그리고 그녀는 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와-함께-하는,
12{역시-그녀의-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그도-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라는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낸 교단이 문선명씨가 만든 통일교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고란 표현을 여자를 따먹는 표현하고 연결해서
이대생들을 많이 따 먹었다는 이유로 자유당 시절에 감방에 들어가 살다 나왔다.

2) 자신의 벌거숭이 모습을 보는 눈들이 열림

3:7 “그 후 그들 둘의 눈들이 열어졌다, 그들은 [그들이 벌거숭이라는^{04/73}]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들을 꿰매어 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허리띠들을 만들었다.”

‘벌거숭이’, “발가 벗은”은 히브리어로는 **גֵּרְגָר, גֵּרְגָר** ”교활한“이란 단어와 같다.

벌거숭이다는 것을 알았다, 즉 저자가 단어놀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도 뱀 못지 않게 교활하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쳐다보고 욕구를 느끼고. 눈들에는 탐이 나고, 먹기에 좋으면 교활해지는 것이 사람이다.

뱀도 교활했지만 아담 하와도 벌거숭이 교활한 상대들이었다.

D. 여흥바님의 시험 감독

3:8 “그후 그들은 여흥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날의 산들 바람에 스스로 견고 계시는 {소리를}¹³¹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부인은 여흥바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자신들을 그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에 숨졌다.”

여바님의 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으면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지시가 생각났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숲 속으로 숨었을까?

3:9 “그후 여흥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너는 어데 있느냐?“ 라고 그에게 말했다.”

אָדָּם “너는 어데 있느냐?”는 질문에 아담은 “어디에” 있다고 대답했는가?

1. 아담의 고백. 나는 벌거숭이. 교활한 사람

3:10 “그가 말했다, 나는 정원에서 「당신의 소리를」⁰³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벌거숭이⁷³] 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숨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어데 있다는 **장소**를 대답하지 않았다. “정원에서 (움직이는)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라면서 아담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

는 엉뚱한 다른 내용을 말하고 나온다.

קָלָהּ 콜하 ‘당신의 소리’와 עָרַב 에롬 ‘별거숭이’가 위치상 강조를 받는데 화자의 급한 심리를 잘 표현한다. 하나님의 소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결단코 먹어서는 안되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2:17절의 말씀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두려웠던 것은 별거숭이 몸이 아니고 죽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담의 긴급한 심리와 상황으로 볼 때 קָלָהּ 콜하와 עָרַב 에롬에 강조력이 실린다.

3:11 “이제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남은 [별거숭이라] 는 것을 너에게 말했는가? 내가 너남에게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너남이 실지로 먹었구나!”

הַמִּן־הָעֵץ...אֲכָלָהּ 하민-하에츠...아할타, 의문부사 הַּ 하는 의문사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감탄사 “실지로!”처럼 사용되었다(JM161b). 특히 내용에 대해서 듣는 자(아담)가 잘 알고 있는 경우, “너남이 실지로 먹었구나?”라는 말을, 듣는 자에 의해서 조건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의문사 הַּ 하는 일종의 감탄사로 사용된 것이다(GKC§150e). 아담, 대답할 말이 없었다!

2. 아담의 책임 전가

책임 전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3:12 “이제 그 남자가 말했다, 「그 여자가, 나와 함께 하도록 당신께서 주셨던」⁰³
²⁹[바로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먹었습니다.”

נָתַתָּה עִמָּדִי אֲשֶׁר הָאִשָּׁה는 동사절에 사용된 분리명사구, casus pendens다.

분리명사구는 문장 처음에 놓인다, הָאִשָּׁה 하이쵸 ‘그 여자가’는 화자의 마음에서 제일 먼저 떠 오른 단어들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문맥의 뜻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한다. 자연히 강조력이 주어진다(JM156e).

2:23에서 **아담이** 이 여인은 이제 내 뼈 중의 뼈다, 그리고 내 살 중의 살이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는 여자는 남자한테 환장할거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나와 함께 하도록 당신께서 주셨던**」⁰³ ²⁹[**바로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여자의 마음은 비굴한 남자의 속아지애, 책임을 **여자에게** 넘기는 비굴한 속아지애 치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제 내 뼈** 중의 뼈다, **내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한

부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자의 **אָדָם** 아담(3:1), 뱀처럼 교활한 모습, 인간의 인격이 벗겨지는 추잡한 모습이 들어나는 장면이다. 구약은 선악과를 따 먹은 부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담 가정에서 살인자 카인이 출생하는 아담 가정으로 시작한다. 반면에 신약은 임신한 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부인으로 맞이해서 구세주 예수를 길러내는 요셉이 가정으로 시작한다. 살인자의 아들과 구원주의 아들이 대비되는 책들이 구약과 신약이다.

3. 하와의 책임 전가

3:13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녀가 행한 이것은 무슨 것이냐? 그 여자가 말했다, 「**그 뱀이**」⁰³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וַיִּשְׁאָלָהּ הַנְּחָשׁ 하나하씩 히썬아니, 동사절인데도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וַיִּשְׁאָלָהּ** 하나하씩가 나왔다. 이는 마치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요, 그 뱀이 나를 속였다”는 주장과도 같은 표현이다(GKC§142a).

뱀이 속였는가?

너/희/남\들은 ³⁹[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는 뱀의 말이

맞았다.

וַיֹּאמֶר הַנְּחָשׁ אֶל-הָאִשָּׁה לֹא-מוֹת תָּמוּתוּן:

너/희/남\들은 ³⁹[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는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이 무엇이지요?

2:17 “그러나,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남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너남이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남은 [확실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렸을 때는 하와는 세상에 없었다. 지시하는 현장에 없었고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먹었다고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가? 캘리포니아 법으로 재판을 하면 유죄판결이 나올까?

디모테전서 2:14에 보면

καὶ Ἀδὰμ οὐκ ἠπατήθη, ἡ δὲ γυνὴ ἐξαπατηθεῖσα ἐν παραβάσει γέγονεν·

그리고 아담은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자가 꾀임을 받고나서 죄를 범했다.

이런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대화의 광장을 열면, 보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을 탐구할 수 있어서 신앙에 자신감을 얻게된다.

וּמֵעַן הִדַּעַת טוֹב וְרָע לֹא תֹאכַל מִמֶּנּוּ

“그러나, 너는 그것(나무)으로부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부터는」⁰³ {너남은 ¹⁷⁴[결코] 먹어서는 안되느니라}” תֹאכַל A10C 남성단수형으로 오직 아담에게만 국한 되는 지시다. 하와는 절대로 포함되거나 하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시다.

מוֹת תִּמּוּת:

{너남은 [확실히] 죽는다,는 남성2인칭형으로 오직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지시다. 이것은 문법입니다.

만일에 하와가 포함되려면, תִּמּוּת תְּמָתָהּ 터무튼에서처럼 תְּמָ '운'이라는 남성 복수형 접미어가 반드시 붙었어야 한다.

E. 시험 감독관 하느님의 저주와 혜택 감소

1) 뱀에게 내리신 저주: 배로 걷고, 먼지 먹고

3:14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뱀에게 말했다, {네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⁶⁷, 너는 모든 종류의 가축들 보다 더, 그리고 들판의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들 보다 더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너의 배 위로」⁰³ 너는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에 너는 「먼지를」⁰³ 먹어야 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보다 더’이지요?

보기에 아름다웠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짐승들과, 초목까지도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뱀은 다른 짐승들을 많이 잡아 삼키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기 보다는 「먼지를」⁰³ 먹어야 할 것이다,는 사실상 동물들 가운데서 뱀의 땅에까지 떨어진 위상을 표현한다.

3:15 “그리고 내가 그 여자 사이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적의심을」⁰³ 놓을 것이다. 「그가」³¹너를 머리에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너남은」⁰³ 그를 뒤통치에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하느님 말씀으로 속이는 악한 세력과 적의심이 강할수록 인간은 하느님께 비례적으로 가까워진다.

2. 선악과를 먹은 하와, 죽음 대신에 임신을 증가시키신 하느님

3:16 “「그 여자에게」⁰³ 그 분께서 말했다, 내가 너녀의 산고를, 특별히 너녀의 임신을 ²⁰⁵[크게 증가시키겠노라], 「고통 가운데서」⁰³ 너녀는 아들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도 너녀의 그리움은 「너녀의 남편을 향해서고」⁰³, 그리고 ³¹[다름아닌 그가} 너녀를 다스릴 것이다.“

하느님은 מוֹת תַּמּוּת {너남은 [확실히] 죽는다,는 지시는 오직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하와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극히 사랑하는 딸 하와에게는 임신을 크게 증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축복이면서 고통이지요. 단 둘 밖에 없는 지구에서 번식하려면 임신회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그 당시 아담 하와에게는 축복에 가깝다.

벌을 주거나, 병을 주거나, 쫓아내거나 결코 불이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아담도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신 하느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종속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교할 때에, 하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줄이신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내려진 고통은 같은 단어 עָבַד 이차본이 사용되었음

עָבַד 베이차본 (아담에게 사용된 단어임)과 עָבַדְתִּי 이차보네흐 (하와에게 사용된 단어임, 3:16)의 어원은 같은 단어: עָבַד 이차본 nm “고통, 수고”라는 같은 단어가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תַּאֲכִלְתֶּם 토○할레나 베이차본처럼 아담에게는 עָבַד 이차본이 먹는 것, 경작, 일하는데서 오는 고통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반면에, 하와에게는

בְּעֶצֶב תֵּלְדוּ בָנֶיךָ 버에체브 텔디 바님처럼 아이를 낳는데서 오는 산고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같은 단어 עָבַד 이차본이 사용된 영역이 다를

뿐이다. 같은 단어 עָבַד 이차본을 사용해서 고통을 표현한 점은, 아담이나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은 균등(?)하다고 해야 되나?. 여자들에게는 산고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오래 사는 반면에 남자들은 생업(일, 노동, 전쟁...)과 관련해서 심하게 다치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고통은 일방적으로 여성의 것만은 아님에 틀림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3.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죽음 대신 땀을 흘려 빵을 먹게 하심

3:17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 사람에게」⁰³ 말했다, <너남이 너남의 부인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너남은 그것으로부터 결단고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내가 너남에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너남이 먹었기 때문에>^{02/67}, 너를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남의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생 가운데서」⁰³ 너남은 그것을 먹어야 할 것이다.”

17절에서 지금 아담이 죽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형벌을 내리지 않고 혜택을 줄이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담은 살리시면서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는 아담이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적한 아담의 죄목들을 지적하겠다.

1)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다고 보았다(로마5:12절)

바울 선생이 사용한 단어 죄 ἁμαρτία = ἁμαρτία 아온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2-3장에 없다. 아담을 지으신 어버이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과일 하나 먹은 문제를 가지고, ἁμαρτία = ἁμαρτία 아온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이 과일 하나 먹은 것을 죄를 지었다고 설명했는데, 요한1서 2:1을 보자.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변호사 이에 쭈쓰 흐리쓰토쓰를 가지고 있다(요한1서 2:1). καὶ ἐάν τις ἁμάρτη, παράκλητο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δίκαιον.

사도 바울 선생의 해석을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동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변호사이신 이에쭈쓰 흐리쓰토쓰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까?, 변호하셨습니까? 요한1서 2:1절 말씀은 창세기서에는 적용될 수 없는 신약에만 속하는 진리입니까? 요한1서 2:1절에 비추어 볼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의 해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해석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까?

어느날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심방을 가셨습니다. 떡과 과일과 반찬으로 가득찬 밥상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떡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미리 말했지 않냐? 살진다고! 이 대화를 들으시던 목사님께서 너,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구나, 이제 너 때문에 이 가문에 저주가 들어왔다, 네가 이 가문에 사망을 가지고 들어 왔다, 너 때문에 이 가문에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너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대로 예기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당혹하고 황당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아담을 다스리고 있었고, 아담 때문에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 왔고, 아담은 불순종 불효자식이었다고 비평을 했는데, 이러한 과격하고 잘못되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혹하고 황당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은 100%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 사도 바울 선생은 사망이 아담을 다스린 것으로 보았다(로마5:17)

τῷ τοῦ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ὁ θάνατος ἐβασίλευσεν διὰ τοῦ ἑνός(Rom 5:17 BGT)

‘한 사람(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었다’.
아담이 과일을 먹었다. 그래서 죽었는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버이처럼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죽지 않았다. 사망이 아담을 다스리지 못했다.
아담을 지으시고 부인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단죄하지 않으심 때문에
사망이 아담을 다스리지, 죽이지 못했다.
아담은 무려 930년이나 지상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선생이 사망이 아담을 다스렸다고 기록한 바는, 사도 바울선생은 아담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론리를 전개했다. 사망이 아담을 다스렸다는 뜻은, 아담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를 다스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아담의 영혼이 죽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의 인간관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인간관을 가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인가?

그런데, 2:7에 나오는 נִשְׁמָה' 네페씩(창세 1:20, 21, 24, 2:19)의 기본 뜻은 영혼, 살아 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생명, 자신, 인격, 욕망, 입맛, 정서, 열정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נִשְׁמָה' 네페씩 한 단어에 들어 있다.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 생명, 숨쉬는 육체를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았다. 영혼, 살아 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생명, 자신, 인격, 욕망, 입맛, 정서,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육체와 하나로 취급했다.

입맛은 육체 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인격은 그 사람의 육체를 떠나서 판단할 수 있어요? 생명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어요?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느껴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영혼, 살아 있는 존재, 숨 쉬는 존재, 생명, 자신, 인격, 욕망, 입맛, 정서, 열정, 이 모든 영역들은 숨 쉬는 육체와 함께할 때에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체 없이는 자신의 인격, 영혼, 입맛, 욕망, 인격, 생명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 נִשְׁמָה' 네페씩의 뜻들인, 이 모든 영역들, 영혼, 살아 있는 존재, 숨 쉬는 존

재, 생명, 자신, 인격, 욕망, 입맛, 정서, 열정(soul, living being, life, self, person, desire, appetite, emotion, and passion)들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고 육체를 떠나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견해가 히브리어 사람들의 견해다. 구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사도 바울은 신약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유대 전통을 떠나서 자신의 생애에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로, נִשְׁמָה' 네페씩이 창세 1:20, 21, 24, 2:19등 17회나 사

용되었지만,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가르침, 이 단어의 기본 의미 영혼과 숨 쉬는 존재, 생명이 하나라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이탈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점을 단어 נִשְׁמָה' 네페씩이 가르치고 있다.

3)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로마5:18)고 보았다.

δι'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κατάκριμα,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로’.

그러나 창세3:17절은, ‘너를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했지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없다.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하게,

הַמְדָּאָה הָרְזָא לְרֹבְעַב 아루라 하아다마 바아부레하

‘너를 위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하느님은 רֹבְעַב ‘너(아담)를 위해서’ 땅을 저주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도바울의 서술은 재판장이신 하느님이 내린 판결문과는 저주의 대상(목적격)에 있어서
파격적인 차이가 난다.

재판장이신 하느님이 내린 저주의 목적격은 ‘땅’이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인 구원론을 세우기 위해서
저주의 목적격을 ‘모든 사람들’로 바꾸어 버렸다.

4)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을 불순종한 자로 보았다(로마5:19).

διὰ τῆς παρ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ἁμαρτωλοὶ κατεστάθησαν οἱ πολλοί,

‘한 사람(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용한 παρακοῆς 불순종이란 단어는 창세기2-3장에 없다.

먼지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사람이 되자, 하느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좋았고,
비록 아담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지만,

παρακοῆς 불순종이란 단어도 아담한테 사용하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서술한 만인 구원론의 문제점

1). ①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음(12), ② 사망이 아담을 다스렸음(17절), ③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한 범죄자(18절), ④ 아담은 불순종한 자(19) 등등, 4가지 죄목들은 그 어느 것도 창세2-3장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이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이러한 4가지 죄목들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세상의 종말 이후에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에서도, 사람이 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던 아담에게 4가지 죄목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부여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천국에 살게 되는 그 때에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죄목들로 아담처럼 단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바울 선생의 론리다(로마5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뺀)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기독교론 자체를 사도 바울 스스로 폐기처분한 것이 아닐까?

하^느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이 과일을 먹었지만, 하^느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사망이 아담을 죽이지 못했다.

본인도, 사도 바울 선생의 많은 글들에서 믿음과 존경심을 심오하게 느끼지만, 로마서5장에서 그리스도의 만인 구원론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인물로 아담을 선정하고,

창세기2-3장에는 나오지도 않는 4가지 죄목들을 아담에게 부여하면서 피력한 사도바울의 글은 차라리 경전(신약성경)에 포함시키지 안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과일 하나 먹은 아담을 4가지 죄목들로 단죄한 점을 바울 선생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사어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실수를 4가지 범죄들로 진술하는 점이 사도 바울 선생이 쓰는 글솜씨의 강점이다.

반면에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글의 결함이랄까 단점이라면,

과일을 먹은 아담을, 아담을 지으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담이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죄?라면, 거룩하신 하^느님과 죄의 관계는?

하^느님과 사는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취득했다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죄를 범하고 단죄 받게 되지 않는지? 등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조직적인 사고방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2). 과일 하나 먹은 아담을 놓고, 하-님은 아담을 구원, 반면에 바울은 4가지 범죄목
들을 뒤집어서 입힘.

창세기2-3에서 과일 하나 먹은 아담을 가지고, 하-님은 아담을 구원하셨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담에게 4가지 죄목들을 씌웠다.
이렇게 파격적인 차이, 대조적인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본다.

하-님은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셨다.
아담이 과일을 먹었지만 그 날에 죽게하지 않고 살리신다.
아담이 과일을 먹은 이후에도 배필까지 만드셔서 가정을 마련해 주시고,
경작인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구를 경작하는 사명을 위탁해서 지구로 내 보내신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담은 사랑하지 않았다.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인 구원론을 피력하는데 글 쓰는 재료로 사용했을 뿐이다.
만인 구원론을 진술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만나 본 적도 없도, 사랑한 적이 없는 아담에게, 책에서 읽어만 본 아담에게,
이런 저런 죄목들을 부담(아버이 사랑)없이 부과시켰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님께서 아담을 단죄하지 않고,
아담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하-님의 판결을
사도 바울 역시 존경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용할 때에
사도 바울의 뒤(오독)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아담을 대신해서 땅을 저주하신 하-님

3:18 “「가시덤불들, 또한 엉겅퀴들이」⁰³ 너에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남은
들판의 식물들을 먹어야 할 것이다.”

물질 보다, 땅 보다 그 무엇 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다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님.
보아서 좋고 먹어서 좋도록 하-님께서 물없이 자라도록 하셨던 과일들 대신,
이제부터는 들판의 식물들을 먹도록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채식은 현대인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은 식탁으로 평가합니다.

3:19 “너남이 땅으로 돌아 갈 때까지, 너남은 「너남의 얼굴의 땀으로」⁰³ 빵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⁰³ 너남이 취해졌기 때문에, {너남은 [먼지이기^{71/04}] 때문에}⁶⁷, 너남은 「먼지로」⁰³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담이 죽었는가?
아담이 첫 번째로 구원 받은 자, 사랑의
하느님으로부터. 죽음 대신에 땀 흘리는 것으로 벌을 낮추신 아버지 사랑!
애당초,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졌는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3:19절과 22절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죽는 이유는,
19절에서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진 먼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는 먼지다.
이것이 사람이 죽게 되는 첫 번째 이유다.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 죽게 되는 두 번째 이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적어놓았다.
사도 바울의 견해는 3장19절, 22절의 가르침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죄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고,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는다.

F. 지구를 경작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파송하시는 하느님

1. 아담이 부인을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하바라 호칭함

3:20 “이제, ¹⁹⁰[바로 그녀는}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부인의 이름을 하바라 불렀다.”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 '하바'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은, 이제 아담도 모든 생명체들의 시조가 된다는 점을 깨닫고 에덴에서 나아가

지구를 경작하고 살아 갈 개척자로서의 마음 준비가 에덴동산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은 이러한 아담에게 ①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음(12), ② 사망이 아담을 다스렸음(17절), ③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한 범죄자(18절), ④ 아담은 불순종한 자(19)라고 증거물이 없는 판정을, 사실상 저주를 아담의 생애에 끼었었다. 이렇게 증거가 없는 사도 바울선생의 그릇된 판정과 기록을, 그것도 2,000년이나 긴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본인은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내 보내기고 결정한 것이다.

3:21 “여호와 하느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부인을 위해서 가죽 외투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다.”
 하느님께서 아담이나 하와를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땅을 저주하셨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땅이 거칠어졌다. 거칠어진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어 입히셨다. 거칠어진 땅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필요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 농업학교의 마지막 수업으로 가죽 옷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짐승을 죽이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지를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나서야, 거칠어진 나서 세상으로 나간다.

2. 접근이 금지된 에덴동산

3:22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사람이」⁰³, 악과 선을 아는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³²³ {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역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지 ²³[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하느님은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체가 아닌 유한한 생명체였다. 오직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다.

3. 고향으로 다시 돌아 온 아담 가정

3:23 “그래서 여호와 하느께서는 /땅으/거기\로부터 그가 /만들어/취해\진 그 땅을

경작하도록 에덴동산으로부터 그를 내 보내셨다.”

וַיִּשְׁלַחְהוּ **expelled** him ?

וַיִּשְׁלַחְהוּ **바여쫄러헤후는 오직 5번 사용되었다.**

① 사하3:23에서는 וַיִּשְׁלַחְהוּ가 우호적으로 보냈을 때에 וַיִּשְׁלַחְהוּ 바여쫄러헤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וַיִּשְׁלַחְהוּ는 평화롭게 떠났다: וַיִּשְׁלַחְהוּ וַיִּשְׁלַחְהוּ

②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벤하다드와 계약을 맺고 벤하다드를 우호적으로 보낼 때에도 וַיִּשְׁלַחְהוּ가 사용되었다: וַיִּכְרַתְּלוּ בְרִית וַיִּשְׁלַחְהוּ וַיִּכְרַתְּלוּ בְרִית וַיִּשְׁלַחְהוּ(왕상20:34).

③ 대장 너부자르아단 (נְבוּזַרְאֲדַן)이 바벨론으로 끌고가는 포로 중에서 특별히 에레미아만 우호적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וַיִּשְׁלַחְהוּ가 사용되었다: וַיִּשְׁלַחְהוּ וַיִּשְׁלַחְהוּ(에레40:5). 이처럼 וַיִּשְׁלַחְהוּ 바여쫄러헤후는 쌍방이 원수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NET는 וַיִּשְׁלַחְהוּ יְהוָה אֱלֹהִים So the LORD God **expelled** him이라 옮겼다. 즉 וַיִּשְׁלַחְהוּ를 “**expel** 추방한다, 몰아낸다”는 뜻으로 번역했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원수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expel**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וַיִּשְׁלַחְהוּ는 언제나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וַיִּשְׁלַחְהוּ의 용례와는 정반대 되는 뜻으로 번역한 NET의 이러한 번역을 본인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BDB, TWOT, Holladay Lexicon에서도 וַיִּשְׁלַחְהוּ를 “**expel**”이라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없다. 또한 וַיִּשְׁלַחְהוּ의 용례를

벗어나서 וַיִּשְׁלַחְהוּ를 “...expelled him”이라 옮긴 것에 대해서 주해도 없다.

그런데 NAB는 “expel”을 שָׁלַח를 옮길 때 사용했다: וַיִּשְׁלַחְהוּ When he expelled the man(창세3:24). 원수를 추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שָׁלַח다: “그는 원수를 네 앞에서 몰아냈다...파괴하라”: וַיִּשְׁלַח מִפְּנֵי אֹיִב...הַשָּׂמֶר(신명33:27).

סָלַח 쉰라흐는 “우호적이며” שָׁלַח 가라씩는 “원수관계”라는 점에서 상반되는 단어들인데 영어번역에서는 같은 단어 “expel”로 상반되는 두 단어들을 번역했다! 자유 번역 시장?!에서 소비자들인 christian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4. 지구 경작을 달성시키시려고, 아담 가정을 다시 내쫓으시는 하느님
3:24 “그 분께서는 그 사람을 내쫓았을 때에, 생명나무 길을 감시하기 위해서 에덴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빙빙 돌아가는 화염 칼을 두었다.”

23절에서는 그를 내 보내셨다. 24절에서는 그를 내쫓았다.

한 동작인가, 두 개의 다른 동작들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물리적인 실험을 해야 한다. 실습을 해야 한다.

실험 없이 마음으로만 느끼고 믿으면, 스스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실험을 할 때에, 즉 하느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만이 진리가 발견된다.

실습 1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아담으로 호칭해서 문 밖으로 내 보낸다.

아담이 앉아 있던 자리에 이제는 아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담이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내쫓는다 말인가?

실습 2

그러나 누가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가르치셨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 하느님이 곧 에덴동산의 하느님이다.

누가15장으로 23절을 이해하고 두 가지의 다른 동작들로 풀어 나가고 있다.

세상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받고 경작인으로 아담을 내보냈으면서도.

여흥바님은 에덴동산에서 그리워하며 내다보고 계신다.

그런데 참으로 먼거리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아담이 하와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본인이 태어난 에덴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신을 만드신 아버지를 찾아서 고향인 에덴으로 귀향하는 아담은 효자 아닌가?
하와, 이번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서 아버지와 함께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자구나.
이렇게 예기했을 수도 있다. 돌아오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도 부자간의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으셨겠지만,
지상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던 여호와님의
대의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는 아담을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내용이 24절이다.

G. 결론

오늘날에는 현대과학의 추적으로, 에덴동산의 위치까지 완전히 파악해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이락에 위치하고, 피손 강과 기혼 강은 싸우디
아라비아에 위치했었다. 에덴동산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락과 싸우디 아라
비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프라테스와 타이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 아
래로 흘러 내려가고, 피손 강과 기혼 강 역시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가면서 북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흘러가면, 4개의 강들이 페르시아 만 중간 지점에서 만
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에덴동산이 위치했던 곳이다.

배후 3:6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물)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은,
물로서 범람하게 되었을 때에, 에덴동산도 멸망해서 지금의 페르시아 만 아래
로 가라앉게 된 것이다. 이제는 창세기2-3장도 새로운 조명을 받을 때가 왔다고 본다.

창세기2-3이 기록 된지 약 2천년 후에, 과일 하나 먹었던 아담은, 히브리
사람들 전통, 구약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그리스어 철학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
울 선생에 의해서, 그리고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
님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도 바울은 ①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자
(12절), ② 사망이 아담을 다스린 자(17절), ③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한 범죄자(18절), ④ 아담은 불순종한 자(19)라는 죄목들을 아담에게 입
혔다.

창세기2-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4가지 죄목들을(로마5장) 하나님
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아담이 취득했다고 피력한 사도 바울 선생

의 론리야 말로, 종말이 온 후에,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느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천국에서 생명나무 과일 하나 따 먹었다가는 여러 가지 죄목들로 아담처럼 단죄를 받을 수 있다, 즉, 미래의 천국에서도 구원 받은 자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미래 구원관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

과일 하나 먹은 아담을 4가지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대비시키면서 서술한 그리스도의 만인구원론은 기독교에 부정적인 여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래 천국론에서도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끊임 없는 의혹의 파장을 몰아가리라 본다.

첫 구원의 열매, 아담

2:17에선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 먹는 날에는 {너남은 [확실히] 죽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담은 죽은 줄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죽이는 대신에 땀 흘려서 먹고 살도록 허락하셨다. 아담은, 살아 있을 때에 죽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첫 번째로 구원 받은 사람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단죄함 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담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아담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본인은 하느님의 판결을 따른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느님의 선하신 판결을 뒤집고 그 대신 4가지 죄목을 아담에게 입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저주를 입히기 보다는 아담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본인은 좋아하고 따른다.

흙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경작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경작하는데 크게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구원함을 받은 축복으로 단명(60-80)하지 않고 무려 930년이란 장수의 삶을 아담은 살았다. 현대인들이 문화 생활한다면서 망가트려 놓은 땅을 아담이 성공적으로 경작해 놓은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머지 않아 없다고 본다.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진 DNA를 가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당가는 구원을 받지만,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아담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구원받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들에
속한다. 아담은 우리 사람하고는 동일하지 않다.
흠이라 한다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점이 에덴동산에 있을 때에 들어났다.
하와와 다투면서 살지 않았나 한다. 그 결과로 첫 아들 카인이
살인자가 되는 불운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살인을 저지른 카인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것이다.

에덴동산은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다.
우리가 자궁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자궁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아담이 고향으로 귀향했지만 하느님과 전처럼 에덴동산에 정착할 수는 없었다.
또한 하느님도 아담과 함께 살고 싶으셨겠지만,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시려는 하느님의 대망의 꿈을 이루시려고,
뚜꺼운 사랑으로 맺어진 부자간의 사랑을 단절하면서까지,
에덴 고향으로 돌아 온 아담을 땅을 경작하도록 끝내는 내쫓으셨다.
그리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에덴동산의 막을 내리신 것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경작인 훈련을 받은 아담은 지구를 경작하는데 성공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930년이나 살았다.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한다는 구약의 가르침,
지혜문학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으로 보인다. 오히려 형제 아벨을 살인한 살인자 카인
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시작 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창세기2장 3장은 에덴 동산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을 담뿍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지시를 어겼지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아담을 단죄하지 않고서
구원하심으로 아담을 축복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삶의 혜택을 즐겼고 인성교육을 시키셨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지구를 경작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 가정을 세상으로 내쫓으신 하느님의 사랑이 창세기 2장 3장의 중심 내용이다.